

성도의 벗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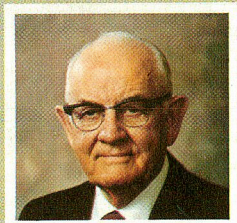
1982

“모든 회원은 각자 받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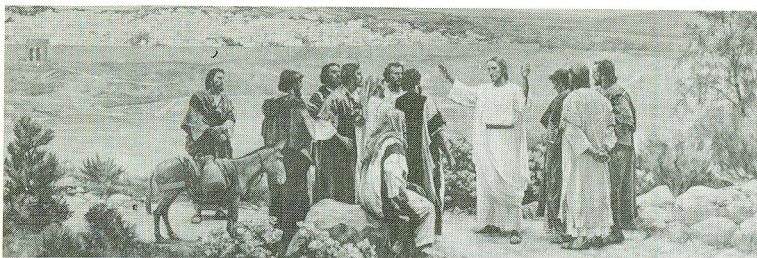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침례를 받은 모든 남녀와
어린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Spencer W. Kimball



성도의 빛 2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앨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클리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영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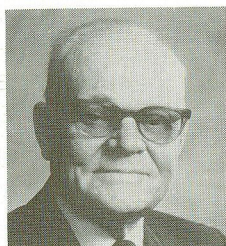
우리는 순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질 의 응답		4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로저 엘 라이스.....	7
“주가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마크 하트.....	9
하늘의 문.....	넬리 에이 로저스.....	11
성스러운 계명—십일조	루이스 에이 켈리.....	13
결혼을 성공으로	휴 더블류 피녹크.....	14
여섯 사람에게서 들은 가장 훌륭한 말씀	토마스 더블류 래다나이.....	22
이 사람은 크리스천 일병이니까요	아취 엠 브루거.....	28
사랑스러운 조니	고든 올레드.....	30
저는 나 어린 자요	닐 에이 맥스웰 장로.....	38
조용한 소리	켄트 에이 한스위스.....	42
킴볼 대관장님께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볼.....	47
증조 할아버지 구두.....	난벳트 라르슨.....	53
숨은 그림 찾기	믹 리소.....	57
자벌레.....	폴라 드팔로.....	58
지역 지도자 메시지	디 브랜트 클레멘트 서울 선교부장.....	61
지역 소식		63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99호, 제18권 제2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학 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우리는 순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리는 지 롬니 부대관장
내관장단 제2보좌

엘 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간음
을 살인이나 성신을 거스르는 죄
다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죄가 된다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은 기
억할 것입니다. (엘마서 39:5 참조) 아
울러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번째
서한에 적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
남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
도전서 3:16-17)

몇 년 전 대관장단은 교회의 청소년
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인간이 부도

덕한 가운데 살아 나가기보다는 깨끗하
게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친께서 부도덕한 행위의 심각
성에 대해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두라고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부친과 나는
1920년 11월 12일 이른 아침에, 아이다
호주 렉스버그에 있는 기차역에서 있
었습니다. 우리는 기적 소리를 들었습
니다. 3분 후면 나는 선교 지역인 오스
트레일리아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틈타 부친은 내게 이
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는구나.
네 어머니와 나,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은 항상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마. 네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네가 실망하면, 우리도 너와 함께 슬퍼할 것이다. 네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기쁘게 너를 맞이하여 다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겠지.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히 기억해 두거라. 네가 순결을 잃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느니보다는 차라리 네 육신이 관 속에 담겨 돌아오는

나는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이 역에서 맞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때 부친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부친이 뜻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나는 유혹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지금에야 나는 그 뜻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친께서 내게 소망하셨던 것과 같은 바램을 지금은 내 아들이나 손자들에 대해서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순결하고 유덕한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미덕에 따르는 보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마태복음 5:8)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비단 주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면전에서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먹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교성 121:45)

유덕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요셉과 다윗의 생활에서 극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큰 유혹을 곳곳이 물리쳤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는 야곱의 모든 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특별히 총애받는 두 지파의 선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후손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님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으며,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음을 한 뒤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시퍼와 같이 그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가족과 승영을 잃었습니다. (교성 132:39 참조)

그것은 항상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응보의 법칙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간음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24)는 일곱번째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누구나 벌을 받

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하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읍니다. 이 세대가 부패하여 순결의 법을 법해도 벌받지 않고 묵인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에서는 순결을 범하는 것이 늘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악이 되어 왔듯이 현재도 그러합니다. 이 죄악이 스스로를 옹정하는 죄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간음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는 신권을 얻어 그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루벤 제이 클라크 이세 부대판장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간음과 사통을 구별하지”(대회 보고, 1949년 10월, 194페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감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간음과 성도착종의 행위도 역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개인적인 순결을 언급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난혼 및 기타 퇴폐적인 성 행위가 용인되는가 하면 때로는 권장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938년 10월 대회에서 클라크 부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결은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에서 기본되는 요소입니다. 한 민족이 부도덕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부도덕은 과거의 강대한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순결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결이 생명 자체보다도 더 가치있다고 강조하는 나의 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께서서는 내게 부도덕

하게 사느니 차라리 순결한 채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이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대회 보고, 1938년 10월, 137—38페이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장구한 시간을 지나며 입증된 진리이며,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순결의 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성구나 인용문 중에서 가족이 큰소리로 읽을 수 있거나,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3. 롬니 부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에서는 순결을 범하는 것이 늘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악이 되어 왔듯이, 현재도 그러합니다. 이 죄악이 스스로를 옹정하는 죄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부정한 행위가 영적인 죽음(하나님에게서 분리됨)을 초래하는 몇 가지 이유를 토론한다. 그 반면에 순결과 미덕으로 “주의 면전에서……신임이……(교성 121:45) 두터워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순결의 법을 지킬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5.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이러한 토론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리런드 에이치 젠틀린
유타 대학,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
대학부 교수

유아나
어린 아이들이
침례받기 전에
이 생을 떠난다면,
그리고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침례를 통한 것이라면,
그들은
장차 언젠가는
침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 몬경(모로나이서 8:10—12)과 요셉 스미스의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교성 137편)에는 이 지상에서 행해지는 유아와 어린 아이들의 침례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여러 성구에 인간이 침례받지 않는다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요 3:5; 니이 31:5—13 참조) 분명히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도 “모든 의를 이루”(마 3:13—17)기 위하여 침례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몇 개의 성구를 더 참조함으로써 명백히 밝혀 낼 수 있습니다. 침례는 “죄 사유함”(교성 49:13)을 위해 베풀어지는 의식입니다. 합당하게 집행된 침례는 회개한 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갈 3:27)는 것이 되며 “새 생명”(롬 6:4)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의로 받아들이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기로 약속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니이 31:10, 13, 16 참조) 침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침례는 책임질 수 있는 연령과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해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침례 성약에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또 누구와 함께 성약을 맺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책임질 수 있는 나이”(교성 18:42)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할 수”(교성 20:71) 없는 것입니다. 물론은 물론경에서 분명히 이를 밝혔습니다. 침례란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린 아이들을 침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모로 8:9—10 참조) 주님은 여덟 살을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교성 68:27)받게 되는 나이로 정하셨습니다. 이 연령이 되어야 어린 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책임을 깨닫게”(교성 29:47)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령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사함을 위한 침례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침례받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침례를 가장 높은 영광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식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모로 8:12, 19; 모세서 6:54 참조) 구세주의 속죄는 무지로 저지르게 되는 어떠한 범법도 다 덮어 주며, 더구나 그들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들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교성 137 : 10)”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그러한 구원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냐에 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이에 대해 말하였으며, 그것은 구원의 계획 전반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속의 능력이 적용되는 범위는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구원, 성도의 빛, 1978년 3월호, 6페이지)

어린 아이들이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증명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진보한다는 점에서 침례나 성신의 은사, 엔다우먼트 및 신전 결혼과 같은 의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린 아이들은하 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해의 왕국에서 예비된 빛과 영광과 예지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6페이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니파이는 구세주가 침례받으신 것은 모든 면에서 기꺼이 순종함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이심이며 (니이 31 : 7 참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협착함” (9절) 보

여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 “너희는 나를 따르라” (10절) 고 할 수 있는 권세를 드리키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유아나 어린 아기로 죽은 영들이 승영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의식의 형태나 기타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책임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에게는 엔다우먼트를 행하지 않고 또한 배우자로 인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러한 의식의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승영에 관계되는 모든 인봉의 축복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성숙한 영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몸은 부활한 이후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성장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기 전에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서 모든 축복을 앗아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에 올 세상에서의 승영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전생 중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교리, 브르스 알 맥콩키 편, 2 : 49)

※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로저 엘 라이스

성찬식이 끝난 후 감독님이 여러분을 감독실로 불러, “형제님께 와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님께서 와드 합창단의 합창곡집 정리하는 일을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독님, 그건 너무 단순한 일이 아닙니까? 무엇이든 중요한 일,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게 주십시오. 청남 회장이나 상호부조회 회장과 같은 직책이라면 정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름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미소를 지으며, “예 그러겠습니다. 합창곡집을 정리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와드 합창단의 합창곡집을 정리하는 일을 맡은 첫날에는, 30분쯤 일찍 와서 합창곡집을 꺼내 놓습니다. 연습을 한

뒤에는 부지런히 노래책을 모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을 눈여겨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조금 늦게 도착하여 서둘러 그 일을 해냅니다. 역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째 주일이 되자,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 만큼 그것은 별 볼일 없는 일입니다.

사실 합창곡집을 정리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나는 단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스스로 가정 복음 교사나 혹은 방문 교사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영접자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단지 집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기꺼이, 성실한 태도로 봉사하는 사람의 일

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되,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을 하기는 하되, 기대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실상 즐겨 일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세번째 형태의 사람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의 일을 하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드 합창단 합창곡집을 정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는 책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면, 시간을 들여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혹 페이지가 떨어져 나간 책을 발견하면 그는 다른 책에서 그 페이지의 것을 복사하여 제자리에 끼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준비하여 책을 나누거나 모아 들일 때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일을 한 몇몇 교회 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보 신전의 에이 해롤드 군맨 신전장은 한때 애리조나주 투선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는 만나기가 힘든 어떤 사람의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를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한 그는 그의 이웃집을 찾아갔고 그 사람이 직업을 두 개 갖고 있어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집을 나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5시에 군맨 형제는 그 집 앞에 앉아서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지자, 그는 얼른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군맨 형제는 “안녕하십니까. 나는 형제님의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으며, 자연스럽게 다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유타주 옥든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아주머니는 젊은 시절에 잇을 수 없었던 주일학교 교사가 한 분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사는 그 직에 부름받았을 때,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머니를 가르친 가장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였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은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 직책을 맡을 정도로 와드 직책이 충분하지 않은 와드에 속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감독님은 몇몇 사람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 그들에게 해의 왕국에 속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불행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모든 모임에 꼭 참석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부름이나 장차 하나님 왕국에서 맡게 될 부름과 같은 중요한 부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봉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을 축복하고, 이웃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주님의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

“주가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마크 하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3 : 8, 니파이삼서 24 : 8)

1932년에는 대공황으로 경기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학 졸업생 10명 중에서 겨우 한 명 꼴로 취직이 가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행운아였습니다. 나는 8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1,140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고 그 월급이 백만 불이라도 되는 듯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벌은 첫번째 수입이었으므로, 우선 훌륭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첫 월급부터 완전한 십일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나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게다가 십일조를 계산해 내기도 쉬웠습니다. 단지 소수점을 왼쪽으로 하나 옮겨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 나는 14불 25센트를 세어 감동님께 드렸습니다. 그후 몇 개월 동안 나는 그와 같이 계속했습니다. 그럴 즈음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동생 미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글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마분지를 잘라 구두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헐리웃의 시멘트 바닥에 내 발가락 자국이 남지 않게 되거든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나는 완전한 십일조를 낸다는 생각으로 으쓱해 있는데 동생 미키는 구두를 살 돈조차 없다는 사실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야. 이전 정당치 못해. 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어.” 그래서 나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십일조를 반으로 나누어 7불을 미키에게, 그리고 7불 25센트는 주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2개월간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전심하고 사려깊은 광부로 나의 다정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은 나의 현실적인 입장을 이해해 주실거야.”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독님께 설명드리고 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옳은 일을 했나요?”

“글쎄.”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돈으로 형제님이 선심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이 동생을 돕고자 한다면 주님의 뭍에서가 아니라, 형제님의 뭍으로 그렇게 해야겠지요.”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놀라는 한편, 그분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달에, 내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6불 65센트가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십일조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숙집 여주인은 나를 믿어 줄 것이므로, 다음 월급날까지 6불 65센트를 꾸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숙집

주인이 시내에서 돌아오자,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식사 준비를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조금 감해 드릴테니까요.” 그리고는 그 액수를 말했습니다. 내가 내야 할 금액보다 6불 65센트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한 달에 140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실까?” 당시에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주님께서서는 인간을 축복해 주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내가 받기에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신 것에 오직 놀라게 될 뿐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확신을 갖게 된 점이라든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홉 명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번창해 가는 사업, 그 외에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

하늘의 문

넬리 에이 로저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 : 10)

열 아홉 살의 나이로 브라질 사우파울루에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복음 공부를 시작한 지 4주 후에 나는 강한 간증을 얻게 되었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십일조의 법을 배울 때 즉시 이 원리에 대해서도 간증을 얻었으나 그것은 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열 여섯 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가정을 돕는 데 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옷, 학비, 차비를 충당했습니다. 나의 급료는 적었으므로 나는 동전 한 잎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그렇게 해도 보통 돈이 월말에는 바닥이 났습니다.

가족 중에 나만 교회에 다니게 되었

으므로 나의 가족은 내가 십일조를 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바친다고 하더라도 나의 월급의 절반에서 10퍼센트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데는 내 몫으로 정해진 돈 전액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으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나는 교회에 들어온 날로부터 계산하여 십일조를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첫번 십일조를 바친 직후에 나의 고용주는 내게 와서 내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거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내게 다른 사원보다 한 시간 반 일찍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급여도 그날부터 50퍼센트나 인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부탁한 적이 없으므로 그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약속대로

해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나는 말라기의 성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항상 나에게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약속하신 바대로 내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나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스러운 계명 십일조

루이스 에이 켈리

1930년대의 대공황 시기에 우리는 뉴저지주의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만큼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은 오직 딸기뿐이었으나 딸기철은 비교적 짧았으므로 우리의 연 수익은 수입이라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우리집은 시골 길가에 있었는데 나는 집 앞에서 딸기를 바꾸니에 담아 팔았습니다. 딸기철의 수입은 총 40불이었으며 그것이 우리가 모처럼 만지는 유일한 현금이었습니다. 4불이라는 액수는 십일조로 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았고 어린 네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일조를 내기로 결심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 나는 옳은 것을 행했다는 만족감 외에는 다른 아무런 즉각적인 축복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딸기 잎 고조병이 그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들판의 모든 식물은 거의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의 딸기 농장은 건강했으며 굵고 맛있는 딸기를 생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딸기를 사려고 사방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딸기 종자가 더 강한 종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밭에 심기 위해 우리 딸기를 몇 그루 사기를 원했을 때 우리 딸기도 그들의 밭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딸기 밭을 특별하게 관리했음에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일상의 방법으로 돌보았을 따름이라고 하자 못믿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의 수익 중에서 십일조를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말일성도가 거의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이었습니다.

축복이 항상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일성도는 계속해서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축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경제 공황이 닥쳤던 때에 우리가 거둔 풍작의 축복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오는 축복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

휴 더블류 피녹크

결혼을 성공으로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은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바치려 하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몇 해 전,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나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인 프랭크 솔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72년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고, 1976년에는 2위를 차지했으며, 많은 장거리 경주의 우승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훈련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운동에서 성공하기 위해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희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며, 충분한 훈련을 위해서는 매일 몇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고(약 32킬로미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등 그가 선택한 분야에서 완전해지는 것과 관계있는 많은 특성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프랭크 솔터와 그 외에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취미 혹은 전문 직업에서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남편과 아내들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을 하지 않을까?”

나는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강하게 결합된 결혼이나 안정된 가정만큼 가치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재혼한 사람을 포함하여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내 말은 간단하게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태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결혼은 모진 시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난과 아픔, 오해, 유혹 등에 직면하여 그것들을 극복해 낸 남편과 아내들은 아름답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과 미래만을 내다봅시다.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많은 책들은 말일성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 위에 형성된 것이지 결코 세상의 관념이나 해결 방법에 의거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느냐에 관계없이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나 본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진리, 곧 결혼 생활이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나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나와 함께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과 고통, 즐거움, 번민 등을 극복한 다음에야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련을 극복해 낸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릴 첫번째 아이디어는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가정과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진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혼한 결혼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것이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에게 주신 말씀인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원리는 사실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교성 121 : 41—42, 45)

건물이 잘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님의 영을 힘입어야 한다고 믿는 영적인 백성입니다. 바라건대 적어도 매일 하루에 두번씩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러한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결혼 생활에서의 말다툼이 결혼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서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느낌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거나 경솔하게 행치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속에 두기만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일은 이야기를 해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침묵”이나 “산책”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언젠가 젊은 부인이 나에게 자기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그가 자기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는 단지 침묵만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마음이 가라앉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사과할 때까지 그는 얼음처럼 냉정합니다. 그는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여러 날 혹은 한 두 주일을 지내기가 일쑤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그들은 아직 불완전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다 성숙된 방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차이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상이 없으며 이번 경우에는 다만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을 따름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의 불화 때문에 이혼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나

를 찾아온 젊은이들의 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그 부모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들에게 이 일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결혼 생활의 일부 분일 뿐이며 가족의 붕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셋째,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우머 감각이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은 사람은 몹시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서 있었던 사적인 일에 관해 농담을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노여움과 잠재적으로 남아 있던 불만의 폭발인 것입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부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지나친 제한으로 서로를 숨막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해 동안 나와 알고 지내온 어떤 부인은 그녀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비결 한 가지를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내 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바쁜 아버지이고 감독이며 사업가지만 남편은 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 주거든요.”

그녀의 내조로 그는 훌륭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두 보조 조직에서 보좌로 봉사했고 후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자신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낚시를 하러 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자기의 취미 생활을 통해 발전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부는 아무도 이기적인 상대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는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나 목표를 존경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세주께서 그들의 사랑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결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유롭게 발전하고 완속해지며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유라 하는 것이 다른 남녀와 불장난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투란 사람을 속박시키는 것이며 사람의 열정을 가장 쓸모없이 소진시키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 꼭 붙들고 매어 있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한 시도 그녀에게서 한 눈을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실제로는 그녀를 더 멀리 내보낼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개인적인 성장과 표현을 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 그들의 재능과 흥미를 개발할 수 있을 때, 결혼 생활이 권태와 단조로움에서 시달린다는 생각을 덜어 줍니다



다섯째, 서로에게 자주 솔직한 칭찬을 하십시오. 어떤 중년 부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남편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었으면 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거든요.”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모든 남편에게는 자기를 격려해 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내가 필요하며 또한 모든 아내에게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나약함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성스러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결합을 위해 성스러운 약속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배우자에게서 훌륭한 점을 발견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남편이나 아내의 좋은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경우에 이혼한 남자와 여자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은 지금 3년째 나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그냥 묻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녀가 여러 면에서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는 그녀를 칭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그녀의 잘못만을 지적했어요. 나는 몇몇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에게 너무 매정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라고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빈정대기를 그만 두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어떠한 하다고 칭찬을 하면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대개 자랑스러운 남편이나 아내의 칭찬과 격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오래 전에 우리의 한 친구는 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어울리지 않는 결혼으로 보일 정도로 그녀가 남편만큼 통찰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적응력이 있거나 현명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녀에게 친절히 이야기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책을 가져 와 부인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는 그녀를 도와 더욱 사랑스럽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론 남편 자신도 역시 성장해 갔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현재 멀리 떨어진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과 자상하며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서로에게 침묵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혼자 있게 해줘요.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줘요. 나는 지금 주위에 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것은 정말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욕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맞아 서로를 도와주며 고통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도대체 결혼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변명을 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무실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루 종일 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변명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있으라고 말할 권리를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대개는 그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무엇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묵상과 기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요구를 이해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돕고자 하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

거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잘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일곱째,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되 그 말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악의 없는 실수를 비롯하여 자주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므로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미안해요.”라는 말과 함께 남편과 아내들은 “괜찮아요.”라는 말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 : 25, 26 참조) 내가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한 결혼은 “미안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서로를 용서해 주는 배우자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인생의 후반기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었고 남편은 초혼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신혼의 기쁨이 있은 후 심각한 불화가 생겨 남편은 몹시 마음을 상하였고 일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의 충격으로 시달림을 받는 가운데 다시 문제를 분석해 보고 그 책임의 일부분은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가서 “미안해, 여보.”라고 어색하게 더듬거리며 여러 번 말하였고 부인은 부인대로 거의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

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 동안 부인은 전에는 이런 사과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녀는 마음에 안도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것 외에도 과거의 다툼과 실수를 다시 끄집어 내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후 7:10 참조)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용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덟째, 문제가 있을 때는 합당한 가족, 감독, 스테이크 부장 이외의 제삼자에게 상의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영감에 의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유능한 상담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상한 아내나 남편을 위로해 주려 하며 또 그러한 면에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배우자들이 집에서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웃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워드 합창단이나 사무실 혹은 그 밖의 어느 곳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은밀한 연애 사건은 서로 다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의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결국 정절과 애정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가족이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외의 제삼자에게 결혼 생활의 문제를 털어놓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동성의 친구에게도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아마 여러분의 문제를 맨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 의지하며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을 의지하십시오. 이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간단하나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홉째,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잊지 말고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니파이일서 8:10; 니파이이서 2:25 참조)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기쁨으로 시작하며 성공적인 결혼은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잃게 되면 그 결혼은 악화되고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웃지도 않고 함께 즐기지도 않는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함께 있을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즐거움이 있으며 마치 어린애 같은 천진스러움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즐거움을 누리

십시오.



열째, 자주 기도하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저질러 마음의 안정을 잃었을 때 하나님 면전에서 몸을 숨김으로써 그들의 범법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최초의 결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결혼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 남편과 아내만이라도 굳건한 결혼 생활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컨대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약점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움없이 성공적인 결혼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부부 관계를 건전하게 지켜 나가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언젠가 모든 부채를 갚고 애들이 자란 후에 혹은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는 행복하며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훌륭한 것을 향유할 시기입니다. 항상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훌륭한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기쁨

을 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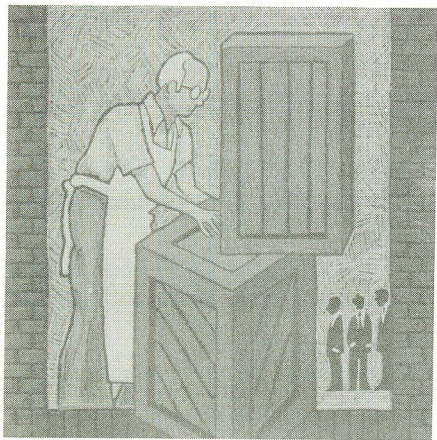


“결혼을 성공으로”를 읽고
여러분은
남편/아내의 모임에서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싶을 것입니다.

1. 어떤 일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신 자세가 중요한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 자세가 필요할까?
2. 주의 영을 슬프게 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영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어떤 자세일까? (교성 121 : 37 참조)
3.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쉬운데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는 데 어떤 기술이 가장 도움이 될까?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는가?
5. 말로 하는 것 외에 결혼 생활에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6. 행복한 결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제시된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

여섯 사람에게서 들은 가장 훌륭한 말씀

토마스 더블류 래다나이



여러분은 교회 모임에 앉아서,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끝까지가 아니라 모임의 끝까지! 여러분은 재미없고 조잡하며 받은 웅얼거리며 지루하고 단조롭고 생기없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며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준비하지 않은 채 청중 앞에 서서 당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중이 여러분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권태로와 하며 졸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는 청중들에게 극적인 끝맺음을(정말로 유일하게 준비한 부분) 한 적이 있습니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훌륭한 자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여 임무를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개종자로서 나는 나의 이름이 다음 주 성찬 모임 연사로 발표되었을 때의 그 당혹감과 두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저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씀하라는 지명을 받을 때 연사로서, 정확한 원리를 적용하고 배워야 할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 몇 가지 기본 원리(잘 알려져 있지만 항상 실천되지 않는)가 있습니다. (1) 적당한 주제를 선택할 것 (2) 선택한 주제에 대해 잘 알 것 (3) 성실할 것 (4) 정해진 시간을 지킬 것 (5)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할 것 (6) 큰소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

(7) 열심히 할 것 (8) 효과적인 이야기와 예를 활용할 것 (9) 시각 자료와 적당한 유우머를 사용할 것 (10) 영적으로 준비할 것 등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또한 웅변 교사이자 학생으로서,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은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한 이야기 중 대표적인 것인데,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정확한 원리를 충분히 활용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야기가 모두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1. 내가 20년 전에 들은 어떤 이야기는 발표자가 합당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을 때,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 준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뉴저지주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찬장 판매 사업을 하였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찬장을 만드는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나 자신이 만든 목제품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큰 찬장 제조 회사로부터 찬장을 팔아 달라는 교섭을 받았을 때, 나는 그들의 공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함께 그 공장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판매할 찬장을 포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휘는 별로 풍부하지 못했으며, 그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의 언어 능력에 적합했고 또한 확실히 경우에 꼭 맞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
몇 가지 기본 원리

- (1) 적당한 주제를 선택할 것
- (2) 선택한 주제에 대해 잘 알 것
- (3) 성실할 것
- (4) 정해진 시간을 지킬 것
- (5)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할 것
- (6) 큰 소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
- (7) 열심히 할 것
- (8) 효과적인 이야기와 예를 활용할 것
- (9) 시각 자료와 적당한 유우머를 사용할 것
- (10) 영적으로 준비할 것

효과적인 의사 전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원리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실성일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를 끝마치고 공장에서 직접 찬장을 가지고 와서 포장했습니다. 그는 자기네 찬장과 경쟁 상대가 포장한 찬장을 가지고 와서 그 두 개를 이중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포장한 찬장은 거의 굵힌 자국도 없는 반면에 다른 것은 수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시범이 결들여진 설명은 잊을 수 없는 감명을 주었고 나는 그 상품이 좋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말과 시각 자료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2. 효과적인 의사 전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원리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실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신조로 삼고 있는 바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 특별한 원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청중은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읽는 데 매우 예민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예를 두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교회로 개종한 직후, 우리 온 가족은 버몬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곳 회원 몇몇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전체화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왕국의 단순하고 충실하며 강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나는 그중의 한 사람이 지역 대회에서 말씀 하라는 지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버몬트 출신인 그는 60대 초반이었으며, 분명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숙달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전한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서두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중요한 계명에 따라 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인즉 그의 고용주는 그를 아주 거칠게 다루었고 그에게 공장에서 온갖 힘드는 일만 시키고 그를 승진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여 기도로 주님께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주인에 대한 그의 악감정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는 주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여러 주일 동안 기도를 계속했다고 말하며 마침내 똑바로 서서 설교단을 꼭 붙잡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로 주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후로 그들의 관계는 향상되었고 공장 안팎에서의 그의 생활은 한결 개선되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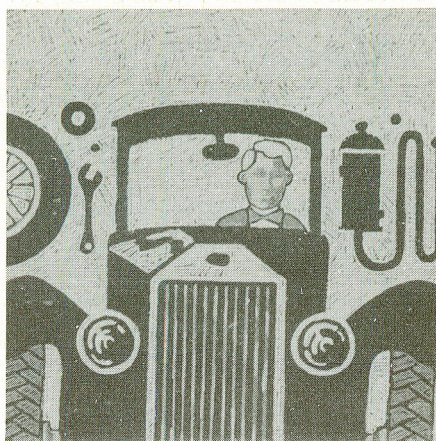
니다. 영향력있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단순하고 진실된 말입니다.

3. 역시 버몬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구식 자동차를 재생하는 취미를 가진 최근에 교회로 개종한 어떤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야기에서 교회 활동에 비활동적인 회원을 도와 활동화시키는 데에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책임과 그의 취미와의 유사점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공통 요소는 성실성이었습니다. 구식 자동차에 대해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 안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 이외에 위의 두 형제들은 효과를 더해 주는 세 가지 필수적인 원리를 지켰습니다. 첫째, 비록 어떤 부분은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두 분 다 말을 시작할 때 변명을 한다거나 말쑥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지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말쑥을 시작할 때 변명이나 사과를 하면 청중들에게 여러분이 준비가 덜 됐다거나 자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중의 호의나 확신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말쑥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발표를 하게 된 대해 절대로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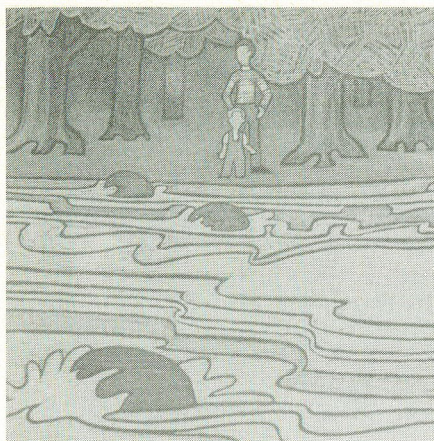
둘째, 각 말쑥은 간단하고 한 가지 주제가 내포되어야 합니다. 연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분명하고 자신있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요점을 발표하고 자리에 앉는다면 얼마나 새롭고 재미있을까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짧고 간단한 이야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위의 두 분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연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참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이크가 있어도,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낮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마이크의 정면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후 좌우로 몸을 움직여 말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음성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빨라지고 음성이 작아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말쑥을 준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유의를 하면 청중이 여러분의 말쑥을 받아들이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또 다른 훌륭한 이야기는 오래곤에서 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 우리 와드 회원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모든 원리, 즉 성실성, 합당한 주제



선택, 확신, 준비, 명료한 말씨, 시간 지키기 등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첨가하여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한 지혜로 인해 평범하였을 말씨가 아주 훌륭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특별한 요인은 열성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열성을 나타냈고, 자기 느낌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물결이 센 강 근처로 자녀들과 함께 소풍을 간 두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강물로 걸어들어가자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매를 맞고 물에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두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유심히 계속 관찰한 후에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거센 물결의 위험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강으로 막대기들을 던져 그것이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호기심은 충족되었고 아이는 흡족하여 아버지를 따라 더 안전한 육지

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고등 평의원은 우리에게 어느 어린이가 부모에게서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았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로 소개된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에서도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신있는 걸음으로 설교단에 나아가서 열성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훌륭한 모든 연사들이 따르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예화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것입니다. 연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청중의 흥미는 고조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개인적이고 주위의 사물과 관련이 있으면 이해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위의 친숙한 사물이나 청중이 잘 아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엮은 이유입니다.

5.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극히 현명하고 조심성스럽게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우머입니다. 나는 말솜씨에서 적당한 유우머를 사용하면 많은 청중이나 반원이 귀를 기울이고 흥미진진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어떤 개념을 강조하거나 또는 청중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열중시키고 흥미를 붙여넣으려 하는 데 유우머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매우 심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잠시 쉬거나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해 버릴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우머는 적당해야 합니다. 그 모임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6. 우리가 말씀의 지명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더 훌륭하고 효과적인 전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명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영적인 준비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나 섬세한 간증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할 때, 특히 간파해서는 안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간증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이란 듣는 사람들에게 영이 우리들 각자를 살찌게 하는 데 항상 필요로 하는 증거—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주님의 사업의 성스러움이나 신성함을 확신시켜 주는 증거—를 전달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초에 금식 간증 모임에 갈 때, 우리는 금식과 기도와 명상과 성약과 주님을 섬기는 의무에 대한 새로운 결의로 임해야 합니다. 금식함으로써 욕망을 잠시 억제하고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서 그런 모임에 간다면, 금식 주일은 아마 가장 영적인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간증 모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모임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나 사건을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참석했던 독신 성인 청년반 및 신학 연구원 대학부 모임에서 들었던 간증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논문 소녀는 약 400명의 청년과 성인 앞에 서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 선교사와 공부를 할 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선교사와 교회를 몹시 반대하였으며 그녀에게 복음 공부를 그만 두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는 시력보다 통찰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간증, 곧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그러한 간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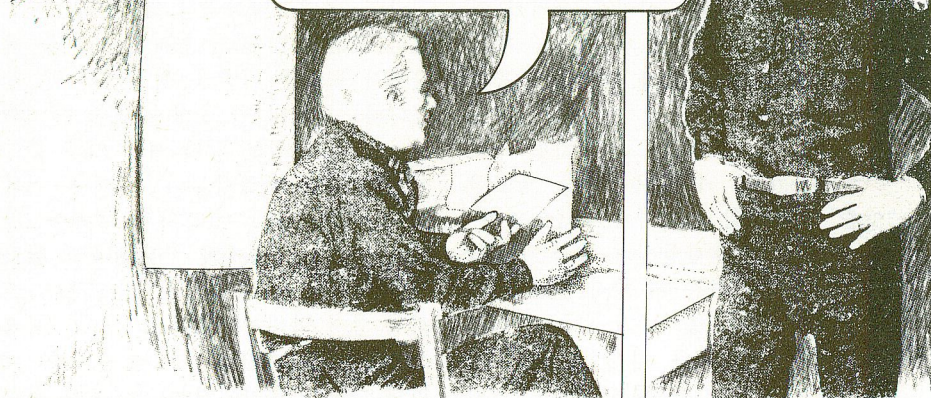
우리는 반드시 훌륭한 웅변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계만 실행하고 주님에게 인도를 구하면, 우리는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어리석어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 여러 가지로 예증된 것을 보아 작은 수단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느니라.”(엘마서 37:6) *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극히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우머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 일병이니깐요

아취 엠 브루거



한국의 대전 부근의 육군 부대에 있던 그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연탄 가스 중독 사고를 훌륭하게 처치한 데 대해 그와 그의 동료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미 육군과 미군 의무부대 대장으로서 이 젊은 의사의 행동에 감동되어 개인적으로 그와 함께 경위를 검토해 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막사에서 군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중독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가정은 연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데 그것은 석탄을 압축하여 벽돌처럼 만든 것으로 방 한 귀퉁이에 있는 아궁이에 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와 가스가 흙과 시멘트로 된 방바닥의 반대

쪽에 있는 굴뚝으로 지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가스가 새는 경우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들은 자주 지정된 부대를 떠나 근처 마을로 가서 술에 취하여 연탄 아궁이 가까이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종종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은 채 부대로 실려 옵니다. 치료할 때는 관례적으로 혈액의 알코올 농도를 검사합니다. 내가 그 의사에게 이 군인의 혈액내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냐고 묻자 그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고 하더니

“아, 나는 크리스천 일병의 혈액내 알코올 농도는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론이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체하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군



입니다. 그들은 부대 옆의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일요일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간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 사병은 일요일 저녁에 그들과 함께 귀가했는데 그 밤을 같이 지내자는 초대를 받았으며 그는 귀한 손님이었으므로 연탄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추웠기 때문에 건물의 모든 문들은 꼭꼭 닫혀 있었으며, 마루에 틀이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 병사는 잠을 자면서 가스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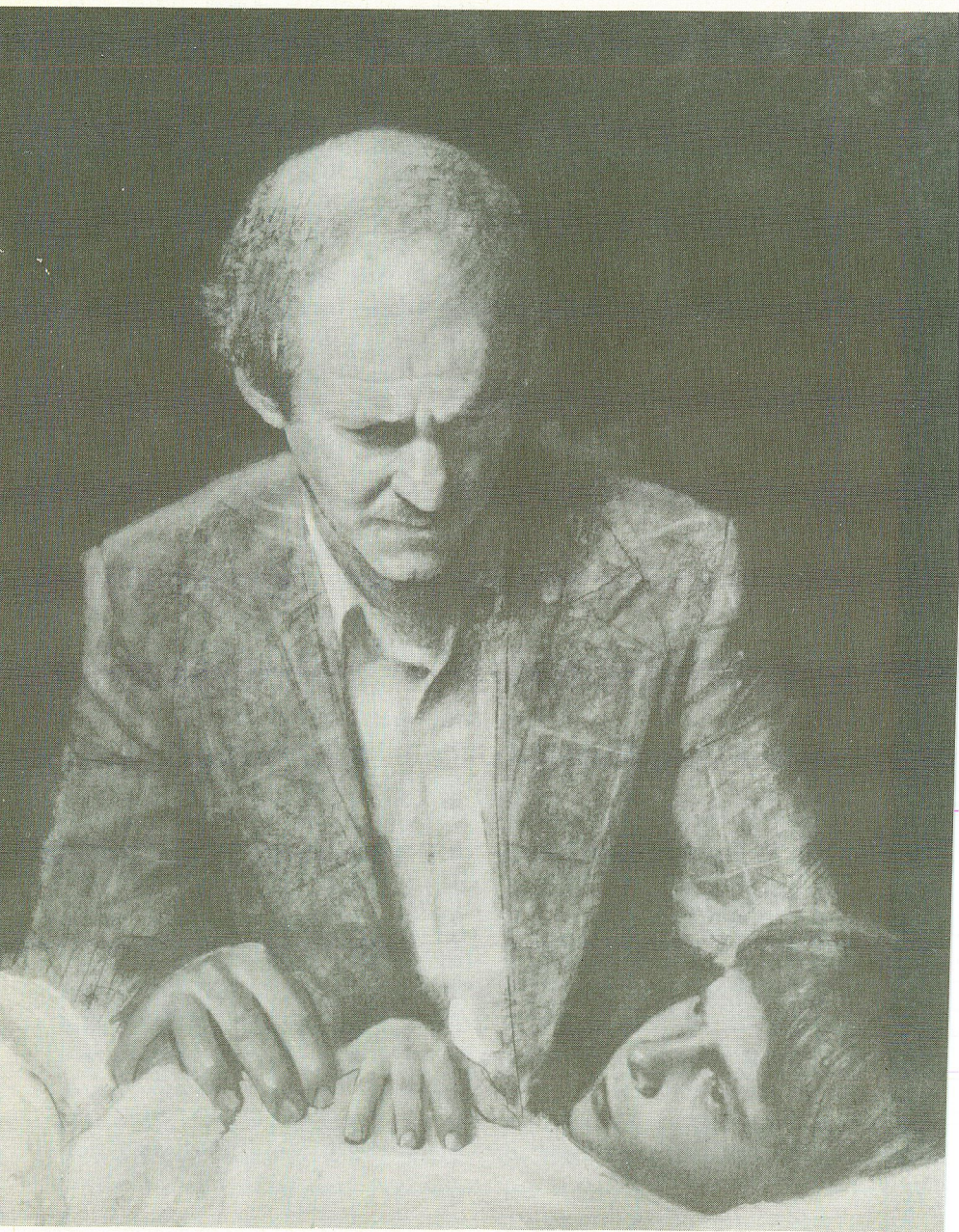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나도 역시 물몬이라는 것을 동료 의사에게 밝혔습니다. 나는 그가 이 젊은 사병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병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크리스천 일병의 생활은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부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 형제를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인간의 저속한 본능을 자극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가 행한 많은 선행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를 치료해 준 의사에게 준 감명과 내게 보여 준 모범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군대 생활에 뛰어들기 전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면에서 합당한 결정을 했었고 환경 때문에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 다. 다른 군인들도 그를 악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그를 마음에 간직했듯이 기억 속에 그의 모범을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빛을 남에게 비추게 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인은 마을에 나갔었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 사람은 크리스천 일병이니깐요. 그는 합당하지 않거나 모범이 되지 않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군의관은 부대내의 군인 중에 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귀환 선교사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한국어를 사용했으며 비번일 경우, 종종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의 교회에 대해 가르쳤으며 그들을 교회에 가입시키기도 했다는 것



사랑스러운 조니

고든 올레드

그의 얼굴은
젖빛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죽어 가고 있었다.
죽다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조니!

1977년 2월 기분이 좋지 않은 어느 날
오후 네 시쯤이었다. 대학교 연구
실에 앉아 야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데 전화 벨이 울렸다.

“아빠, 엄마가 지금 존을 병원에 데
리고 간다고 말씀드리래요.”

“병원?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다.

캐드린의 전화였는데 조금 걱정스러
운 음성이었다.

“제가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존이
자기를 앞쪽 벤치 위에 태워 달래잖아
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나는 신음하듯 말했다.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리
고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제가
멈출 때까지 그애는 팬찮았거든요. 저
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는 것을 원치 않
는다고 했어요.”

“그래, 그건 그렇고. 사실대로 이야
기 해라. 상태는 어떠니?”

“별로 심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그애는 펄쩍 뛰
어내렸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

닥에 부딪쳤어요.”

갑자기 나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래, 그애의 상태는 어떠니? 정말 심하게 다쳤니? 많이 아파하지 않니?”

딸이 대답했다. “아뇨. 행동이 약간 이상할 뿐이에요. 그애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무릎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왼손 손가락을 구부렸어요.”

잠시 후 나는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어 아내 사론과 이야기를 했다.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약간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 동안 더 두고 보아야 한대요.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X-레이를 찍어 봐야 한대요.”라고 아내가 경과를 알려 주었다.

“알겠요.”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야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사태가 악화되면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곧 가겠요.”

어둠 속에 실같은 겨울비가 내렸다. 세 시간짜리 수업을 중간쯤 진행하고 있을 때 청소 관리인의 일을 맡고 있던 아들 토니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 뒤에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며 대학의 시청각학과 주임 교수인 에반 메모트 박사가 서 있었다. 그 둘은 아주 심각해 보였다. 나는 그때 에반의 엄하고 연민에 찬 얼굴에 나타나 있던 비극적인 표정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후 몇 분 동안에 일어난 일은 기억이 희미하다. 나는 복도에서 그들의 눈을 들여다 보며, 침통한 내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느

끼며 그대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내 머리 속은 착잡했다. 조니는 살아 있었으나 상태는 악화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아내와 소아과 의사인 그랜트 웨이 박사와 간호원 두세 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조니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검푸르게 변해가는 것 같았으며 머리카락은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고 곧 어떻게 될 것만 같았다. 그의 턱 밑에는 초승달 모양의 그루티 받쳐 있었고 그 안에는 피가 들어 있었다. 나는 뱃속이 죄이는 것 같았다.

“조니야, 괜찮니?” 나는 조용히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약간 미소를 지었으며 팬히 그릇에 침을 뱉었다. 누군가가 화장지로 그의 입술을 닦아 주었다. 그는 “불편해요.”라고 대답하더니 “눕는 게 낫겠어요.”라고 했다. 나는 그 애가 열 세 살 치고는 꽤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라. 도와 줄까?” 나는 그가 베개에 누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병자 축복을 해주면 어떻겠니?”

그는 눈을 감고 입으로 숨을 쉬었다. “예……저……너무……딱……누르지는……마세요.” 나는 에반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 빙긋 웃었다. 결코 우리가 심하게 누를 수는 없었다.

그런 다음 복도에서 웨이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존은 머리의 뒷부분이 땅에 닿아 머리의 오른쪽에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있어 피가 엉켜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누가 머리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것 같아요.”

을 알게 되었다. 웨이 박사는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좀 나아 보이죠?” 나는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속으로 계속하면서 반신반의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48시간 동안 그를 그곳에 두었다. 철저한 간호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낮 시간을 지켰고 나는 밤 시간을 지켰다. 그는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는데 퇴원하려고 예정했던 날 아침 6시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누가 머리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것 같아요.”라며 신음 소리를 냈다.

간호원들은 처음에는 30분마다 순회를 했는데 이제는 한 시간마다 찾아와서 눈동자가 제대로 확산되었는지 전등으로 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는 나를 깊은 근심에 빠지게 했다. 내가 방을 나설 즈음엔 그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신음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에게 좀 순한 진통제를 먹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즉시 돌아왔다. 곧 간호원이 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끝이란 시간이 너무 길었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존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조니, 너 괜찮니?” 나는 그에게로 몸을 구부리고 근심스런 얼굴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존, 내 말 들리니?”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흐려졌고 색깔이 없어졌으며 입술 사이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죽어 가고 있었다. 죽다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조니!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빨리 의사 좀 보내 주세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지금 혼수 상태예요. 죽어 가고 있어요.” 어린 간호원이 쉼새게 달려와서 그의 맥박과 눈과 여러 가지 것들(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을 검사해 보고 울면서 나갔다. 울다니! 틀림없이 간호원은 그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도록 훈련을 받지만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는 것이다.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즉각 웨이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잠시 후 샤론에게도 전화했다. 소식에 접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인내와 자제의 아름다움을 느꼈

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을 도와 그 애에게 병자 축복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겠오.”라고 나는 대답하며 아내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라고 했다.

나는 의사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2~3분도 채 못되어 신권 소유자인 에드 파커라는 젊은 인턴이 나타났고, 어쨌든 우리가 병자 축복을 행하기도 전에 웨이 박사도 도착했다. 축복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이기도 한 내 아들을 살려 주시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한 것을 기억한다.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나는 그때 이후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축복이 끝남과 거의 동시에 존의 눈에 생기가 돌았고 그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며 역시 급히 달려온 신경 외과 의사 제이 에이치 하우스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했다.

잠시 후에 하우스 박사는 큰 혈종(핏덩어리)이 존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아마 핏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나 얼마나 빨리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의 머리에 구멍을 뚫고 핏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애가 박사님의 아들일 경우 박사님께서 처리하실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나는 말했다. 잠시 후 조니는 거의 두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할 뿐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

그때쯤 여러 사람이 모였다. 그 애 엄마, 할아버지 알레드(그분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 본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절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여러 의료 요원, 내 아이들 몇 명, 우리 이웃인 메모트 가족 등. 그들은 정말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다. 우리들은 큰 대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앉아 있었는데 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어린 마이크 메모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자꾸 깜짝거렸다. 사흘 전 존이 길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을 때 너의 출혈이 심했던 것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을 하며 존에게 몸을 굽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를 업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후 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언어 훈련원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남 마크에게 전화를 했다. 또한 기도 명부에 존의 이름을 기입해 달라고 옥든 신전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가 솔트레이크 신전에는 이미 부탁을 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프로보 선교사 언어 훈련원 접수제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피니저 원장님이 여기 신전 명부에 형제님의 아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말했다. 물론 우리에게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견디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느낌의 상호 작용이었다. 그런 영성, 소속감, 가족이라는 느낌, 이런 것은 우리의 친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딸의 친구들도 그 병원을 찾아 주었고 병원을 지나가는 많은 친지들도 들려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보였으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린 아들을 개인적으로 알며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사랑, 위안, 신앙,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이 남아 있었다. 그 공포는 방부제 냄새처럼 널리 퍼졌으며,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할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우연히 승강기에서 어떤 의사 친구를 만나 내 아들의 증세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는 “그것 참 안됐네. 지난 주에 존스가의 소녀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어.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살아나지 못했어.”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 말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전화를 받는 마크의 최초의 반

응도 역시 그러했다. “나는 항상 존이 너무 착하므로 우리 곁에 오래 붙들어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었다. 수술실 밖의 복도에서 “수술실—관계자 외 출입 금지”란 말이 쓰인 녹색의 통제문을 바라보며 살아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소년을 생각했다. 나는 그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한순간,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상상했으므로 그 가족의 슬픔을 알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나는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만한 것은 없었다.

한 손으로 타일 벽을 짚고 거기에 머리를 대었다. 나는 물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견디어야 했습니까?” 물론 나는 그런 질문에는 거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또 물었다. “이런 상태에서 내 아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존을 살려 주기만 하면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서약한 기도가 생각났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계약을 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께 그런 것을 부탁드린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나는 더 나은 생을 살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계약을 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쉬면서 나는 작은 지혜나마 짜내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우리가 존을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존의 소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 훌륭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했음이 알려졌다. 나는 아내 샤론을 겨안고 겨울 아침의 햇빛이 잘 드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공기를 깊이 들며 마시며 우리의 감사를 표시켰다. 그날 아침은 매우 청명했으며 거의 투명하기조차 했다.

나는 그 다음날 밤을 기억한다. 조니는 지대한 관심 속에서 스와이(인도에서의 종교가, 학자의 총칭)처럼 하얀 봉대로 머리를 싸매고 팔에는 링겔이 꽂혀 있었다. 그 애는 간간이 신음 소리를 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섬찔했다. 다음날 오후 그 아이의 경과는 급속도로 호전되어 소아과로

옮겨졌다.

나는 매일 밤 병원에 있었고, 내가 근처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낮에는 아내가 병상을 지켰다. 조니의 빠른 회복은 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악화될 때가 있었다. 한번은 내가 입원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는 그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그 애는 욕실에서 있었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존, 무슨 일이니?” 내가 불렀다.

“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애는 비탄에 잠겼다. 나는 그를 침대대로 데려다 뉘였다.

“또 아프니?”

“간호원을 부를까?” 내가 물었다.

“아니오.” 그 애는 한숨을 쉬며 잠시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 뚫린 구멍을 생각해요. 머리털이 안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문법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도 상관치 않았고 나도 상관치 않았다. “그저 그 뿐이에요…… 그리고 잠깐 동안은 아빠가 어디 계신지를 몰랐고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나는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애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애야, 알았다. 아빠가 대신 고통을 가질게. 모든

것은 사실 잘 되어 가고 있다. 집으로 데려다 주마. 머리카락도 곧 자랄거야.”

이제 그는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 깊게 빛나는 갈색의 큰 눈을 보았다. “아빠 머리카락은 말구요.” 그 애는 미소지었다. 사실 내 머리는 몇 년 전에 다 빠져 버렸었다.

“물론 아니지. 내 머리는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런데 애야, 내가 어떤 형태의 머리를 갖게 될지 아니?” 나는 씩 웃었다.

“어떤 건데요?”

“나는 술이 많고 짧은 곱슬머리를 갖게 될거야.”

“그것 참 근사한데요.” 그 애는 웃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머리에 통증을 느끼게 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치는 푸르스름한 불빛밖에 없는 어둠 속에 함께 있었다. 나는 계속 그를 바라보며 이번 일로 인해 많은 친척과 친지들이 더욱 가까워진 사실에 놀랐다.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나와는 전혀 친하지도 않았지만 그 애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준 것이다.

“아주 오래 전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약 18개월밖에 안됐을 때니까 물론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 24번가의 오래된 디 병원에서 로비가 태어난 다음날 밤이었지. 너하고 나만 집에 있었는데 아마 한밤중인가, 그보다 좀 지났을 때인가 있었지? 나는 네가 이불을 덮고 자는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려고 네 방에 갔단다. 복도의 전등 불빛이 너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는데 너는 자다가 깨더니 나를 올려다 보고 미소를

짓지 않았니? 지금처럼 말이야. 그래서 나는 흔들 의자 가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 쳐다보았지. 우리는 다만 그러고 있었을 뿐이었단다. 우리는 침대 난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고 서로 들여다보며 아마 15분쯤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말야……” 나는 잠시 쉬었다. “그것은 너의 늙은 아빠의 경험 중 가장 큰 경험의 하나였단다.”

얼굴을 약간 찡그린 그 애는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딘가 기쁘게 찡그린 것 같았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제 느낌은 지금 제 느낌과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목을 잡았다. 생명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주 확실하게 맥박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그랬다. 강하고 규칙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를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었다. 또한 그가 전에 계획했던 대로 외과 의사가 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이 지상에서 특별히 수행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는 늘 특별한 영이 동반하고 있었고 자주 은총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랑스러운 존.” 나는 가만히 불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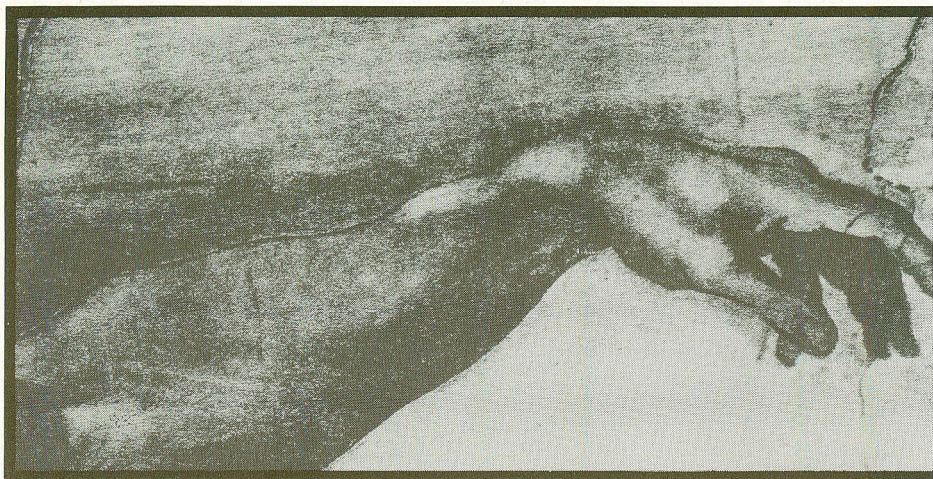
그 애는 실제로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은 쉬어라. 잠을 좀 자도록 해.” 그 이름은 오래 전 그날 밤에 내가 그에게 준 비밀스런 이름, 특별한 때를 위해 준비해 둔 이름이었다. *

저는 나 어린 자요

닐 에이 맥스웰 장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자들이었으며 어떤 도시 문화를 가졌었고 또 앞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줌으로써 스스로와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대중 운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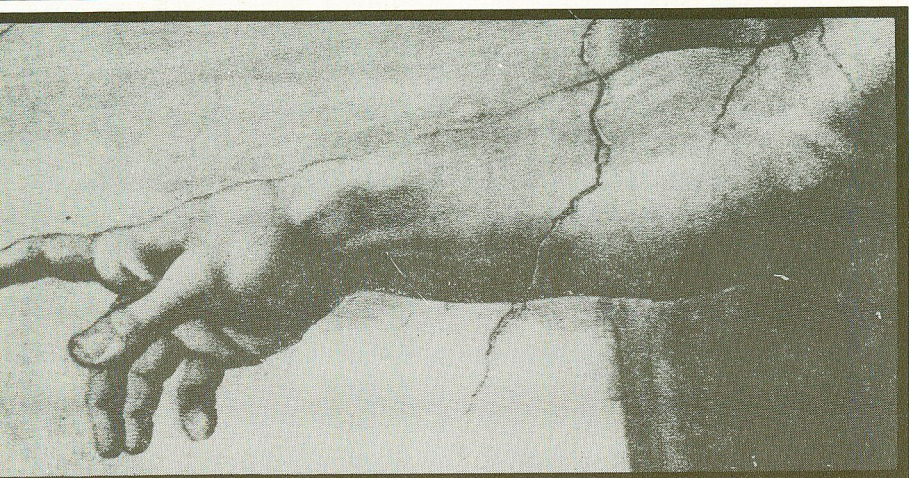
교회 젊은이들이여!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주 부적당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에녹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 어린 자요, 말을 더디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오니”(모세서 6:31)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우리

의 능력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결의임을 알았습니다. 에녹은 계명을 지켰고 자기에게 기대를 거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굳게 믿으면서 만세 중에 가장 훌륭한 도시를 짓는 자가 되고자 나섰습니다. 인류 역사를 훑어보면 에녹성에 살았던 백성만이 의롭게 된 후 다시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지위나 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를 목표로 할 때 여러분 개개인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해 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결의임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마오리 부락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곧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축복문에서 이 아이가 장차 민족 교육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바니 위흥기라는 그 소년은 자라 어른이 되어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뉴질랜드 교회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35세에 뉴질랜드 교회 대학의 총장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뉴질랜드의 다른 교육자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인 위흥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니 위흥기 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영감받은 축복은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실천과 인내가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 동란 때, 이 호남이라는 청년은 한 미군으로부터 군법 회의에 관계되는 일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생활 질서가 깨진 당시의 상황은 비참했지만 호남 청년은 고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제2의 언어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미군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했으며 특히 말일성도 중위를 잘 살펴본 후 그가 다른 동료 군인들과는 “다른” 것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중위는 이 청년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그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해 왔으나 별로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교는 백지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며 구원의 계획을 대강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 그 미국인의 말이 사실이란 것을 이 호남의 마음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복음 공부를 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며 그 후에도 그 종이 조각을 특별한 순간을 생각나게 해주는 귀중한 것으로 수년 동안 간직하였습니다.

이윽고 한국 전쟁은 끝이 났으나 이 호남 형제의 신앙 생활은 그대로 지속되었습니다. 이 호남 형제는 30대에 아시아 대륙의 최초의 스테이크에서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그는 한국 부산에서 선교부장으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선교사와 회원들에게 현재를 초월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비극적인 상황으로 생각될 때에도 기회는 주어진다 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기만 하다면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의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을 뿐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려 저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이용하여 요셉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을 실행하도록 기회를 주시

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 : 20 참조)

몇 년 전 이탈리아에서 그곳 청년 몇몇이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괴롭힌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그 패거리에 펠리체 로티토라는 청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한 용감한 장로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거든 그 지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지부로 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펠리체는 감히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믿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영국 선교부로 파견되어 영어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신앙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스위스 신전에서 아름다운 이탈리아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약 1,000명쯤 되는 이탈리아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의 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펠리체 로티토는 1980년 7월에 32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파도바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아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펠리체에게서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비록 선교사를 괴롭혀 왔었지만, 그에게는 순수한 마음과 복음을 믿으려는 품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펠리체 로티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그는 그 지역의 수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백 명의 선교사—바로 몇 년 전에 그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과 같은 선교사—를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현재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현재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밖에 모르지만 그분은 미래까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해 주리라 믿습니다.

1945년 5월, 오키나와 미 육군 전투 부대의 쓸모없고 겁 많은 젊은 보병이었던 나는 포대가 포격을 받고 있었을 때 내 기도에 대한 극적인 답을 비롯하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증진시킨 여러 가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한 그런 이기적이고 정직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평생 봉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 보답할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나는 이전보다 훨씬 큰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1973년 오키나와에 잠시 체재할 때 그 지점을 가 보았더니 폭격 때 내 참호였던 자리는 무성한 사탕수수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몇 마일 저쪽에서—여러 해 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진 밤들을 지내던 지점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오키나와의 성도들과 군인들로 가득 찬 예배당에서 말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곧

오키나와에는 교회의 스테이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후에 1945년 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온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예견하신 일이지만 나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선 현재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표를 향한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내세에 지장을 초래할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이탈리아의 거리에서 그의 선민에게 손길을 뻗치셨고 비천한 마오리 마을에 약속을 주셨으며 한국 전쟁 때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진실된 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우리들이 쭈구리고 앉은 참호 저쪽을 보고 계셨으며 우리가 노력한다면 갖게 될 미래의 교회를 위해 우리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제명을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봉사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

나는 오후 내내 15세 정도의 소년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을 되풀이하여 연습하면서 우리의 대화를 준비하였다. 누이와 나는 학교 버스를 타고 이란 테헤란의 복잡한 거리를 가면서 한번 더 가상의 대화를 되풀이하였다.

나는 사도이신 김볼 장로가 키가 크고 은발이며 모세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누이와 내가 집에 도착하면 그는 왜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나는 우리는 회교도의 성스러운 날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은 쉬고 대신 토요일에 나간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관한 토론이 시작되면 나는 그 문제점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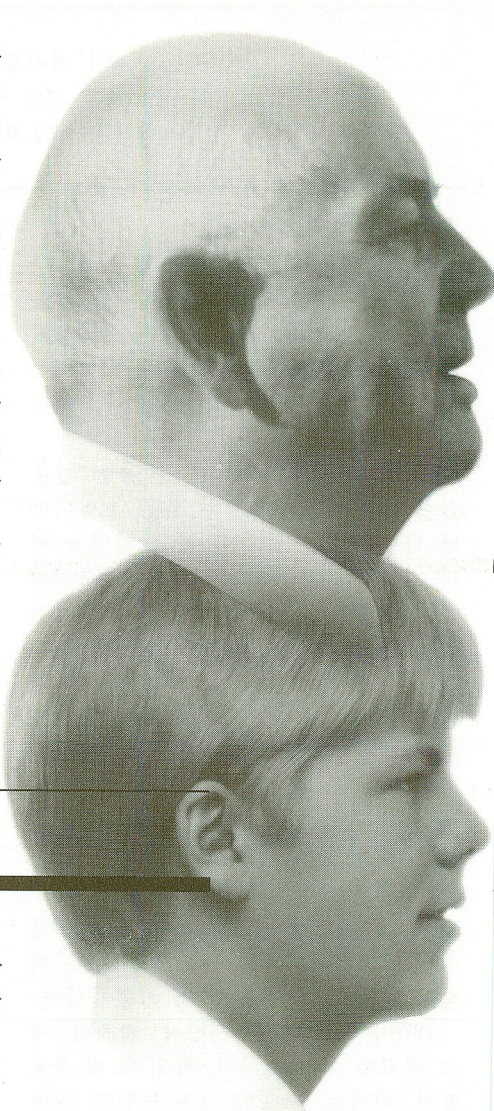
나는 내 옆에 앉아 무슨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누나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분은 유럽 선교부를 방문하면서 왜 여기를 오시지?”라고 내가 물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선교부가 없고 스위스 선교부에 속해 있잖아.” 그녀가 대답했다.

“그분이 오늘 밤 여기에서 머무르실까?”

“아니, 저녁 식사만 하신대.” 누나가 대답했다.

나는 몸을 돌려 보통 때 매우 아름답다고 여기던 도시의 외관과 여러 소리들을 잊어버린 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다시 은발과 우뢰



같은 목소리를 지닌 키가 큰 사도의 모습에 떠올랐다.

우리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분은 두 무릎에 어린이들을 하나씩 앉히시고 거실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안내하시자 김볼 장로는 어린이들을 가만히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일어서서

내 손을 잡으셨다.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는 생각했던 대로 은발이었다. 온 집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사도의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

“어떤가 젊은이?” 그분은 쉼 목소리

조용한 소리

켄트 에이 환스워스

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분을 쳐다 보았다. 그분은 인자하게 미소지으며 목을 가리켰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건 원래의 내 목소리가 아니야. 몇 년 전에 병으로 목소리가 변해 버렸어. 아직도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

“지금도 불편하신가요?” 나는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대화를 하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니, 그러나 이따금 지쳐서 탈이지.” 그분은 나에게 그분 옆의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시며, 다시 양쪽 무릎에다 흐뭇해 하는 어린이들을 하나씩 앉히셨다.

“자, 오늘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지 않겠니?” 그분은 이 말씀밖에 안 하셨다. 나는 다시 말없이 그분을 바라보았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말인가? 아니야, 부모님들은 오늘의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셔.

“성경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분명하게 미리 알고 계신 것에 놀라 나는 주의깊게 연습했던 계획을 단념하고 마침내 고백을 해 버렸다. 그분은 내가 계속하기를 기다리셨다.

“누이와 저는 신교도 고등학교에 다니는데요. 성경 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물론이라는 것을 잘 비웃거든요.”

“그럴 때 넌 어떻게 하지?”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쉼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우리 대화에서 이렇게 빨리 이 결론에 이르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는—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임하실 것이라는—상상하지 않았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는 온순하게 대답했다.

김블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손으로 안절부절하는 어린이를 달래셨다.

“내 생각에는 네가 무엇을 잊어버리

고 있는 것 같구나. 너는 8세에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을 때, 이미 은사를 받았어. 내 말의 뜻을 알아듣겠니?” 그분은 이제까지 언제 그렇게 묵선 목소리였느냐는 듯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은사는 항상 너와 동반하는 선생님이야.
아마 너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조용하고 작은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은사는 항상 너와 동반하는 선생님이야. 아마 너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조용하고 작은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분은 내게로 몸을 기울이시면서 내 무릎에다 그 손을 놓으셨다.

“그 음성은 이와 같은 경우 네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해 줄거야. 그것이 너를 구해 줄 수 있을거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외에 내가 그날 밤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회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감명이다. 참을성있는 이해와 조용한 관심, 부드럽고 즐거운 유우머 등에 대한 감명, 영혼을 자라게 한 김블 장로의 간단하나 강력한 교훈의 말씀은 내 기억

의 깊은 곳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후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저녁에야 비로소 지금은 예언자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던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은 내가 단독 대륙 횡단 비행을 하던 날인데 그것은 철저한 공군 조종사 훈련의 1년 중 가장 극적인 과정이었다. 우리 여섯 명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20분 간격으로 이륙하여, 텍사스주 루복에서 아리조나주 피닉스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T-38 제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내 호출 부호는 토고 29였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다른 모

든 사람들처럼 나는 이륙하여 예정 고도로 올라갈 때 거의 무한한 힘을 느꼈다. 나는 최고도에 가까운 14,600미터를 올라가 드디어 평형을 유지하며 서쪽 수평선을 향하였으며 아래로 펼쳐진 지구의 곡선을 볼 수 있었다. 눈 아래의 경사진 대륙과 하늘의 장엄한 고독

속에서 나는 우주 공간의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아래에는 웅장한 록키 산맥의 모습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었고, 지구의 노화된 표면에는 반짝이는 불빛만 있었다. 왼쪽에는 서부의 사막이 널리 펼쳐서 아아치 형의 하늘과 맞닿고 있었다. 정

“토고 이십구 오른쪽으로 돌려라. 비행 방향은 0-3-0.”

말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었다. 나는 피닉스 공항으로 하강하여 안심하고 활주로를 질주했다.

우리는 재빨리 연료를 보급받고 맑은 하늘로 다시 높이 올라 기지로 향했다. 나는 텍사스주 루복에 도착하기 전에 텍사스주 엘파소 상공에서 남동으로 노선을 따라 마지막 비행 일정에 올랐다. 내가 뉴멕시코를 지날 때, 남서쪽에서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고 항공 기상 무선 통신소에서는 폭풍우가 텍사스를 가로지르는 나의 항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기상 전선 사이로 루복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가 나 있는 것같이 느꼈다. 내가 북동쪽으로 날고 있을 때, 바로 앞의 비행기로부터 점점 나빠지는 기상에 관한 보고가 들어왔다. 편대장은 돌풍 속에서 갑자기 엔진 하나가 정지되어 남은 엔진 하나에 의지하여 기

지로 돌아갔다. 장엄한 적막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연료는 점점 떨어져 갔다. 내 뒤에 다가오는 새로운 폭풍 때문에 돌아설 수도 없었다. 우박이 비행기 조종석 덮개를 몰아쳤고 번개가 어두움을 가르며 번쩍거렸다. 끝없는 깊은 수렁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높이 날기를 중단해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루복 관제소에서 리스 공군 기지의 지상 관제소로 무전기를 돌렸다. 거기의 활주로 옆의 트레일러에서 한 비행사가 두레이다 전파 영상경으로 내 비행기가 버둥거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한쪽 레이더에는 나의 비행 고도가 잡혔고 다른 쪽에는 활주로 중앙선과 내 위치와의 상대 위치가 포착되어 있었다. 내가 무전기를 주파수에 맞추자, 갑자기 수화기(헤드폰)에서 아주 확실히 찬 목소리가 들려 왔다.

“토고 이십구 오른쪽으로 돌려라. 비행 방향은 0—3—0.”

다음 5분 동안 나는 그 조용한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내 몸과 버둥거리던 비행기를 바로 세웠다.

갑작스레 구름을 뚫고 내려가 활주로 의 빛나는 인도등이 보일 때까지 그 조용한 음성은 나를 인도했다. 바퀴가 활주소에 닿자, 나는 겨우 기체를 활주로 중앙에 정지시키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벌써 안고자 트레일러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5분 동안 내 생명은 글자 그대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내 가슴이 감사함으로 벅차 올랐을 때, 나는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나에게 말을 해 오던 주님의 종의 목소리였다. 그때 나는 그 분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녕 통제사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폭풍우 속에서 “내게 말겨라.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테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

그 놀라운 착륙이 있던 날 이후, 나는 그 작고 조용한 음성을 여러 번 들었다. 때때로 나는 그 음성에 주의를 집중했다. 어떤 때는 다시 공중의 왕이 된 듯한 허황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더 나은 판단”으로 그것을 억눌렀다. 영국에서 휴가중에 계보를 조사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조상들의 두 마을—가르도르프와 길버르 다이크—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가족의 줄기에 대해 새로운 것을 찾지 못했다. 나는 고을을 나누는 쪽 뻗은 도로를 달릴 때마다 국도에서 5.6킬로미터 떨어진 휘트기프트 마을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지났다. 나는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휘트기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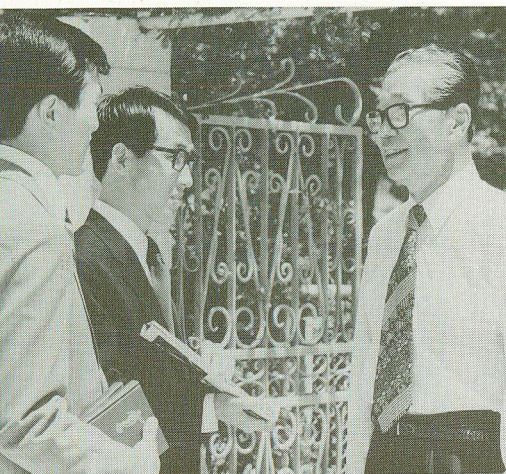
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번째 지나갈 때에는 그것은 이제 느낌뿐이 아니었다. 루복의 폭풍 때 거의 통제사만큼 분명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잔잔한 소리가 있었다.

그 음성은 말했다. “휘트기프트로 가라.” 나는 차를 돌려 그쪽으로 접어들었으나 내가 그 작은 요크셔 마을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으로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었다. 나는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따라 되돌아 나와 버렸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니 집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계보 일꾼인 내 고모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다. 편지의 첫 귀절에서 고모는 내가 지시의 음성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네가 영국에 있는 동안 어디에 머물렀는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네가 막 그곳에서 떠난 후에 나는 우리 가계가 가르도르프나 길버르 다이크가 아닌 휘트기프트라는 요크셔의 작은 마을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았다.”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갈림길이나 개인적인 폭풍의 위기에 접하게 되었을 때 작고 잔잔한 음성이 들려 왔고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항상 또 다른 음성, 하나님의 사자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 그 속삭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 음성은 네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해 줄 거야. 그것이 너를 구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 *



김볼 대관장님께서 선교사가 되라고 전하심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교회로 개종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백만 명이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선교 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므로 여러분은 이 책임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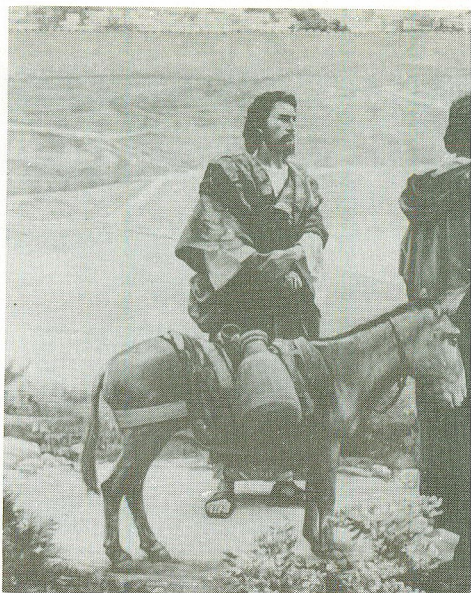
복음은 모든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교회 청년은 누구나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답으로, “예, 모든 합당한 청년은 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젊은이가 모두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현재 합당하지 못한 젊은이는 지금부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가라.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이 유대인에게로다.”(교성 133:8)

그러므로 장로로 성임될 수 있는 연령의 교회의 젊은이는 전세계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또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현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젊은이의 수는 교회의 해당 연령의 젊은이의 삼분의 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분의 일은 “모든 젊은이”가 아닙니다. 내가 방문한 스테이크에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젊은이가 해당 연령의 젊은이의 평균 25내지 40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젊은이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어린이,
모든 소년과 소녀가
모두 선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까요?

확실히 교회의 모든 남자 회원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십일조를 바쳐야 하고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세상의 더러운 악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야 하며 주님의 신전에서 해의 왕국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젊은 여자, 모든 부모,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도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어린이, 모든 소년과 소녀가 모두 선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외국에 가서 봉사해야 한다거나 정식으로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성별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원은 각자 받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회원이 아닌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의 말씀의 사자로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경전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선교 사업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습니다.”(교성 88 : 81)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동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거나 왕국을 위해 희생하



도록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이상주의의 감정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봉사의 부름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래에 한 젊은이가 자기의 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선교사업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그것은 나의 의무이고 주님께서서는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하며 자녀들은 성장한 후 부모님이 선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도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복음을 연구해야 하며, 교회내에서 봉사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명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수행하려고 19년간이나 준비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 열성을 가지게 되며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 사업보다 더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신학 연구원 중등부 학생이 될 때까지 선교 사업을 계획해 온 훌륭한 젊은이가 많이 있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나 대학부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중등부나 대학부 건물은 성숙한 지성과 진지함으로 교회에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줄 새로운 젊은이들로 꽉찰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도덕적 가치관도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배워 보지 못한 방법으로 순결과 의로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임

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이나 신권회의 출석율이 어떻게 변하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소년 소녀가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데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는 많은 소년 소녀들이 앞으로 그들이 할 일에 대해 마음에 뜻을 세우도록 도와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저금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해서 벌었거나 선물로 받았거나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적어도 그 일부를 빼어 저금 통장에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며 올바른 목적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엄숙한 책임과 특권에 대비하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철자를 익히며 구구법을 암기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젊은이는 생애의 위대한 사업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유년 및 청년 시절의 나날을 청년 시절의 선교 사업과 삶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젊은이의 준비 상태는 다음 세 분야에 대한 노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1.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합당하게 간직하며 세상의 모든 죄에 물들지 않는다. (주님은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받

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생활에 큰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애 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연령에 달했으나 복음의 면에서나 다른 면에서 무지하다면 이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웃음 거리가 될 뿐입니다. 19세가 된 청년은 그의 생활이나 표준을 재조정하지 않고도 지금까지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서 선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능한 한 자신의 부담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장래의 선교사가 태어날 때부터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청년이 전부 다 또는 대부분이 자신의 선교 사업 기금을 부담할 수 있고 따라서 선교 사업을 하는 데서 오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10대에 개종한 청년에게는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경제적 수준이 낮고 일할 기회가 극히 제한된 농촌에 살고 있는 경우이라든가 이 방법에 좇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만 들어 낸 규범이 아니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프로그램도 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후에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외의 감람산에 올라가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시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행할 위대한 사업을 예견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보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다의 여러 조그만 섬들과 북미와 남미 그리고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분이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유대인을 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인을 말하겠습니까? 혹은 근동의 수백만 국민들을 말하겠습니까? “땅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천재의 미래록의 수백만 사람들을 뜻했습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중부 유럽의 수십 수백만 사람들을 뜻했습니까? 혹은 전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에 지상에 내려오기로 예정된 모든 영을 뜻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나 뜻하신 바를 파소 평가했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세계에 40억이나 있는데, 겨우 10만의 개종자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복음 28:18-19)

그분은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라 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휘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세우셨으며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나누는가에 따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장막의 저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확고 부동한 간증을 전할 때에 우리의 죄는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두는 죄를 용서받는데 필요한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 사업에 관한 성구의 하나인 교리와 성약에 4편에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2절) 있게 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15-16)

한 사람이 온 생애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인도한다면 그 기쁨은 어떠하며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일생의 과업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남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개개인은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특별하게 생각할 만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갈과 모래와 침묵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인생과 20년 후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때는 바로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교 지역으로 부르신 이유가 단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딸을 미래의 강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선교 지역으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어떤 위대한 예언자는 일단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선교사 직에서 해임됩니다. 여러분은 2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생의 선교 사업에서는 해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 19세 때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79세에 죽게 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60년 동안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업입니다. 공연히 사람들을 선교사로 나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 침례를 받은 모든 남녀와 어린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전 예루살렘에서 켜진 불이 꺼질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는 그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리 띠를 동여매고 이 위대한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들, 곧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수행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심하는 부모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박사들 가운데 앉아 있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말한 그 소년처럼 되어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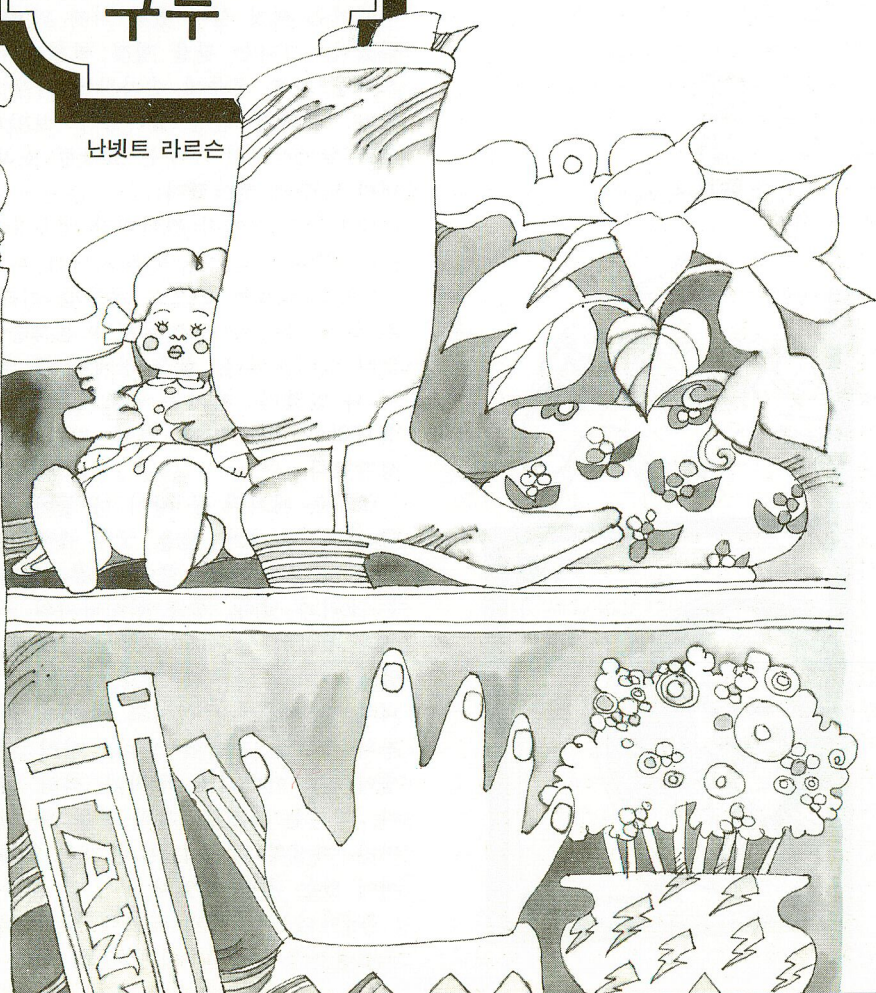
내 친구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

난넷트 라르슨

저도
기억의 책을 위해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까요?”



페기는 책장 맨 꼭대기 선반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낡고 닳아 빠진 밤색 구두는 어머니의 화분과 장신구 사이에서 이상하게 보였다. 페기가 기억하기에 그것은 항상 같은 선반에 있었다. 때때로 페기는 낡은 구두를 바라보며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

스럽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종종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를 보면 나의 집안 체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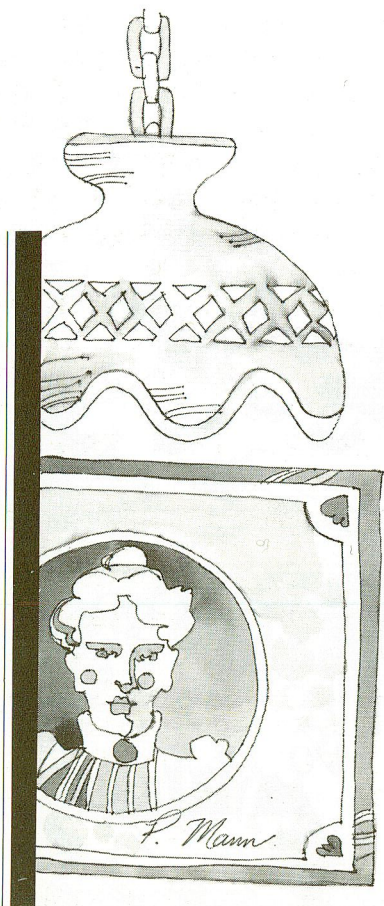
페기는 제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구두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에 대해 유난히 호기심이 생겼으며, 왜 구두가 한 짝만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페기는 책장 옆에 있는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팔을 힘껏 뻗었다. 부드러운 가죽 구두에 손가락이 겨우 닿았다. 그래서 한번 잡아당겨 보았다.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루에 떨어졌다.

페기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구두를 집어 들었다. 그것을 들고 보니까 더 커 보였다. 페기는 손으로 구두를 이리저리 돌려 가며 굽힌 자국이나 흔적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구두 창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다. 페기는 증조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아주 많이 걸어 다니셨다고 생각했다.

구두는 페기의 두 발이 다 들어갈 만큼 컸다. 그녀가 발을 구두 속에 집어 넣을 때 그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에는 페기의 발 말고도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페기는 구두를 벗어서 그녀의 발 때문에 구겨지고 찢어진 여러 장의 종이를 끄집어 냈다. 여러 장의 종이에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페기는 그것을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여러 장의 종이에 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 적어 두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증조 할



아버지의 구두에다 넣어 놓셨을까?”
페기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페기는 어머니가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종이가 구겨지고 찢어진 것을 보시고 기분나빠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구두를 와락 움켜 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밑에 넣어 두었다.

페기는 구두에 대해 누가 물어 볼까 봐 오후 내내 걱정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녁 식사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페기가 감자를 한 입 막 씹으려 할 때, 어머니께서 데이비드와 지미와 페기와 아빠를 둘러보셨다.

“누가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를 치웠니? 그것이 선반 맨 위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어머니가 물으셨다.

페기는 입 안에 든 것을 겨우 삼키고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그랬어요.” 페기는 침을 꿀꺽 삼켰다.

“네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놀라서 외치셨다.

“예, 저는 엄마가 찾을 수 없도록 침대 밑에 감추어 두었어요.” 페기가 말했다. 페기는 얼른 자기 침실로 가서 어머니에게 구두를 가져다 드렸다. 그녀의 뺨으로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가 써 놓으신 종이 가 구겨지고 찢어졌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구두를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애야.”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페기를 사랑스럽게 껴안아 주시고는 그 구두를 다시 조심스럽게 선반에 올려 두셨다.

그 다음 가정에 밤에, 어머니는 각 아

이들에게 예쁜 포장지로 싸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는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를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마루 가운데 놓으셨다.

“자, 선물을 열어 보아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페기와 데이비드와 지미는 포장지를 찢고, 각각 기다랗고 얇은 책을 끄집어 내었다.

“엄마! 엄마가 갖고 계신 것과 같은 기억의 책이군요.” 페기가 외쳤다.

어머니는 페기의 기억의 책 표지를 여시고, 멋있는 젊은 청년이 있는 구식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증조 할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찍은 사진 이란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분에 대해서나 내가 왜 그분의 구두를 특별한 곳에 보관하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하셨다.

“나는 어렸을 때,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참 좋아했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구두에 관한 것이란다.” 어머니는 구두를 들고 다 닳은 가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증조 할아버지는 혼자서 어린 다섯 자녀를 돌보셔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단다. 어느 아주 더운 날, 그분은 소유하고 있던 조그만 농장 위의 언덕에서 소 울음 소리를 들으시며 잠시 쉬기 위해 개천가에 앉아 구두를 벗고 시원한 물속에 피곤한 다리를 담갔단다. 그런데 어찌다가 구두 한 짝이 물에 풍덩 빠져 버렸지. 그분은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구두가 금방 급류에 휘말려 버렸

기 때문에 전질 수가 없었다. 그분은 할 수 없이 구두를 한쪽만 신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일기에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을 기억한다. ‘언덕을 내려온 후에 내 발은 심한 상처를 입었다. 구두를 한쪽만 신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가정과 같다. 그래, 구두를 한쪽만 신고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내가 그 낡은 구두 한 짝을 다시 찾으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 아내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페기, 데이비드, 지미에게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가족이 반만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일까 하고 생각한다. 너도 알다시피 그분은 복음에 대해 잘 모르셨기 때문에 신전 결혼의 축복을 받지 못하셨다.”

그러자 페기가 큰소리로 물었다. “그럼, 증조 할아버지네 가족은 우리와 같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란 말예요?”

“내가 그들 모두를 위해 지금까지 신전 사업을 해왔으니까 그분 가족들도 지금은 영원한 가족일거야. 나는 또한 고조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신전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모두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을거야. 제보는 그런 데에도 쓸모가 있다. 제보는 내가 증조 부모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데에 큰 도움이 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페기가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에서 구겨진 종이를 끄집어 내면서 “이 종이가 제보에 도움이 됩니까?”라고 물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 증손들이 우리에게 대한 것을 읽고 싶어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 왔단다. 그래서 나는 기억해 두고 싶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적어서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에 넣어 둔단다. 그리고 나서 내 일기나 기억의 책에다 보관하기 위해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이에 타자를 치지.”

페기는 흥분하여 손뼉을 치면서, “아! 저도 기억의 책을 위해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까요?”라고 말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데이비드도 외쳤다.

어린 지미도 제외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얼른 종이와 크레용을 찾아서 그날 모래 상자에서 놀았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구두에 넣어 두었다.

“저것이 우리의 최초의 이야기구나.”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모두들 웃었다.

그때 이후로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는 책장 아래 선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페기와 지미와 데이비드는 구두에다 특별한 이야기를 넣어 두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거기에 쉽게 넣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매주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택하고 어머니는 그들의 기억의 책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들을 타자해 주셨다.

페기는 이제 더 이상 증조 할아버지의 구두가 책장에서 자리를 잘못 차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낡아 빠진 밤색 구두가 어머니의 다른 화분이나 특별한 물건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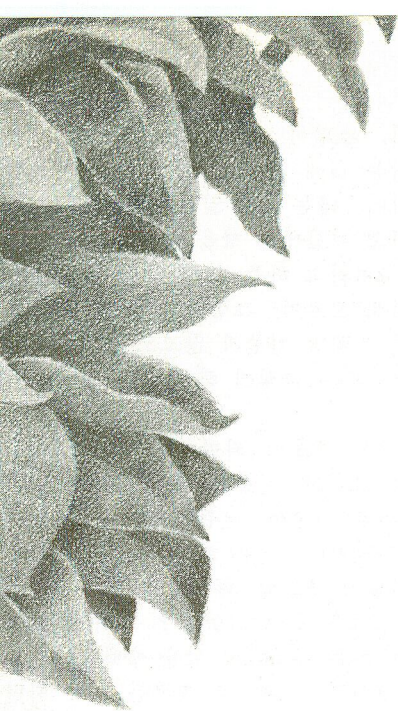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믹 리소



이 그림 속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세요.





화창한 봄날이다. 자벌레는 배가 고픈기 때문에 잎파리를 아삭아삭 잡아먹고 있다. 부드러운 녹색 잎파리는 맛이 있다. 울새가 갑자기 와락 덤벼든다. 자벌레는 울새의 점심으로 회생되고 싶지는 않았다. 자벌레는 가지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거미처럼 길고 짧은 명주실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이 사라지면 실을 타고 다시 맛있는 잎파리가 있는 나뭇 가지로

자벌레

폴라 드팔로



올라간다.

울새는 자벌레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본다. 다른 자벌레들도 역시 그들이 뽑아 낸 실에 매달려 있다. 어떤 것들은 녹색이고 어떤 것들은 붉은 색이다. 또한 갈색인 것도 있고 노란색인 것도 있다. 어떤 것에는 줄무늬가

있으나 무늬가 없는 것도 있다. 또한 작은 나뭇 가지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런 벌레들은 모두 풀썩기 무리에 속한다. 과명은 자벌레과인데 “땅을 측정한다”는 뜻이다. 자벌레는 영어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이런 이름들은 자벌레가 기어가는 모양에서 유래된 것이다. 모충의 다른 과에 속한 벌레가 모두 같은 방법으로 기어다니지는 않는다.

자벌레는 먼저 몸으로 둥글게 고리를 만든 다음 세 쌍의 앞 다리를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 다리로 나뭇 가지나 잎을 꼭 붙든다. 그리고는 뒷다리를 앞다리에 갖다 대며 나아간다. 자벌레는 몸의 가운데 부분에는 다리가 없다.

자벌레가 명주실에 걸려 있을 때, 바람이 자벌레를 이리저리 흔들기도 한다. 그러면 더욱 배가 고파진다.

갑자기 울새가 멀리 날아가 버린다. 마침내 자벌레는 그의 먹이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자벌레의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있다. 어떤 소년이 자벌레를 명주실에서 빼어 낸 것이다. 소년은 자벌레를 편 손바닥에다 놓는다. 자벌레는 손가락 끝까지 기어가 본다. 자벌레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본다. 소년은 웃는다. “너는 참 재미있게 기어가는구나. 너의 몸으로 조그만 고리를 만들다니! 지금 너는 내 몸을 채고 있지?” 소년은 자벌레가 자기 팔 위로 기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나는 키가 117센티미터인데 너는 길이가 겨우 2.5센티미터밖에 안 돼.”

자벌레는 소년의 어깨 위에서 쉬고 있다. 점심은 소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소년이 이렇게 중얼거린다. “아버지는 너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 너는 봄에 잎을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여름에는 땅을 파헤친다지? 너는 고치라고 하는 명주실 잠자리를 만들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어떤 자벌레들은 고치를 만들지 않고도 잠을 잔다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는 겨울이 되면 땅 밑에서 살겠지? 그리고 이듬해 이른 봄에 네가 땅 위로 나오면 너는 더 이상 자벌레가 아닐거야. 너는 회색이나 흰색 또는 갈색빛의 조그만 나방이가 될거야.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니? 네가 암나방이면 너는 나무에다 알을 수백 개나 낳을 것이고, 그런 알 속에는 새끼 자벌레가 들어 있지. 어떤 나방은 가을에 알을 낳기도 한단다. 그런 작은 알들은 겨우내 나무 껍질에 붙어 있지. 아유, 징그러워. 봄이 되면 그런 자벌레 알들은 부화될 거야.”

“자벌레야, 나는 이제 가야 해. 아마 나는 내년 봄에 네가 우리집 현관 전등불 주위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군.”

소년은 얇전하게 자벌레를 낫은 나뭇가지에 놓아 준다. 그러자 자벌레는 전속력으로 나뭇 가지를 기어간다.

자벌레는 몹시 배가 고프다. 그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대야 하니까. 그가 큰 녹색 잎으로 올라가면 몸을 잘 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울새가 다시 온다 해도 자벌레를 보지 못할 것이다.

드디어 자벌레는 점심을 먹기 시작한다.

※

